

내 사랑을 깨달아라.

작성일 : 2010. 04. 27. (화) 오전 10:15경
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스타교회)

안녕하십니까?대구스타교회 김은진입니다

2010. 04. 27 오전

[많은 간증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 지옥을 바라보는
주님이 가장 아프실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이 와
주님의 마음을 위로 드리며 제 마음과 정신, 생각, 영,
혼, 육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한다고
주님께 기도드릴 때 받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]

나 괴롭다. 너무나 괴롭다.

내가 사랑했던 자들…….

아니 아직도 내 마음 깊숙이 자리

잡은 그들이

저 지옥고통 받는 것 보니,

나는 마치 내가

저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진땀이 흐르고 너무나 괴로워 비명도 나오지 않는다.

‘흑’거리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오고,

내 눈에선 눈물이

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.

그 눈물조차 너무나 많이 흘렀기로

이젠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…….

내사랑하는 신부들 보니

또다시 하염없이 흐르는구나.

내 사랑하는 자들아.

아직도 내가 사랑하는,

나의 사랑하는 자들아.

너희가 그곳에 있음을 볼 때면

내 마음 찢어지고 무너진다.

내 심장이 내려앉는다.

내 마음 너무나 안타까워

탄식소리 끊이질 않는다.

세상에 있을 때

그리도 내가 내 곁으로 오라고

너무나도 많이 역사했는데…….

모질게 날 외면하고 세상과 자신들의

삶과 사랑에 취해
내 사랑에 대해선 알려고도 하지 않던
너희……. 그래도 난 너를 사랑했노라.
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만 주었다면
지금의 고통은 없을 텐데.

이미 그 지옥 확정된 자들은
나도 어찌할 수 없기에
이젠 영영 이별인 사실이,
영영 천적마귀에게 고통 받을 너희 생각에 내 심장 파열되는 것 같구나.
너희가 그곳에 있어도,
어미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
한눈에 알아보듯
내 눈은 자꾸만 널 향하는구나.
매일매일 내 심정 찢어진다.
잘게, 잘게 찢어지고 다시 붙고
이런 고통의 연속이구나.

아직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으로
그 발 빠르게 달려가는 자 너무나 많아 내 심정 탄다.
내 마음 타서 채도 남지 않는구나.
그 지옥 그 누구보다 그곳은
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.
그러나 더 이상 내 신부들 보낼 수 없기에 나는
오늘도 나의 사망자들 통해 그들에게
그 잔인한 고통과 끔찍함을 보여준다.
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한결음에 달려가 그 고통 그만 받게 하고 싶지만
그럴 수가 없구나!

내 사랑아, 내 사랑아.
너는 이젠 내 마음을 알고 깨닫고 제발이나 내 말씀에 순종하고
나만을 최고로 사랑하여
그 끔찍한 세계가 아닌
나와 영원한 기쁨의 세계
그 천국의 사랑의 삶을 살자.

그리고 너희도 그리 만들되,
아직 날 몰라 저 사망으로 가는
나의 신부에게 가서 외쳐라!
가서 데리고 올지어다.
시급하다. 급하다.

사탄마귀 지금, 이제 곧

천국지옥 두 문만이 남고 그리되면
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되며,
또한 그들은 심판이 확정되었기에
혈안이 되어 많은 자들 데려가니 너희는
제발이나 내 심정 깨닫고
어서 빨리 나와 생명구원하자.
내 눈의 눈물 흐르지 않게
나와 손잡고 가자!

나의 사랑들아.
지금 너희가 내 옆에 있으니
나는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구나. 사랑한다.
내 사랑아 더욱 함께하자.
내 심정 느껴 모든 것 행하길 원하노라.

사랑한다. 나의 사랑들아.
더욱 나와 손 꼭 잡고 떨어지지 말자.
사랑한다.
늘 나와 하나 되자!
내 마음이 조금이나 전해져
너희 심령이 깨어나길 원하노라.
사랑하노라.

너희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는,
나 주 예수그리스도.